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정착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한다”

한국직업자격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 3부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이 발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한국직업자격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6월 10일(금)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나승일 한국직업자격학회장(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교수)의 개회사로 막을 연 학술대회는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의 축사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기조 강연을 통해 NCS활용 및 자격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고영선 차관은 “NCS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직업훈련과정, 평생교육과정, 또 국가기술자격제도 등을 개편해 ‘학위-자격-훈련-경력’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역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올해부터 도입된 국가기술 자격의 변화와 도입방향을 말했다.

2부 연구논문 발표시간에는 국가자격 제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가 차려졌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첫발제자로 나서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설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NCS기반 직업자격은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

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로 NCS 기반 직업자격이 제대로 작동돼야만 NCS기반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이 노동시장에서 정착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용 케이엠플러스 대표는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편 사례를 제시하고 그 방향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장석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팀장이 나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NCS평가기준(절대평가)과 교육부의 성적관리(상대평가)기준이 상이해 일원화된 관리가 힘들다”며 교육현장에서 성적 관리의 기준이 상이해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민규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연구원이 한국과 호주의 자격상호인정 방안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3부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효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문상연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과장,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덕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국 국장이 패널로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NCS와 연계된 국가기술 자격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법제도, 또한 신자격 제도의 보완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직업자격학회는 2011년 4월 15일 창립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회는 앞으로 NCS를 활용해 교육현장에서 학력-자격-직무경력 등의 상호 등가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 학회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노법**

이새건 기자 lsg@elabor.co.kr